

이재명 또 큰절 사과 “민주당, 공정 측면서 많이 부족했다”

수도권서 몸 낮추며 중도층 공략 박스권 지지율 벗어나기 총력전 부동산 등 문 정부와 차별화 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수도권에서 몸을 낮추며 수도권·중도 표심을 공략해 나갔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예전에 없던 큰절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등 배석한 민주당 의원 15명도 동참했다.

이 후보는 이후 ‘반성’과 ‘사죄’, ‘사과’라는 단어를 6차례 써가며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고 몸을 한껏 낮췄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개혁·진보 세력의 핵심 가치랄 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인제 채용에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며 질책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사죄의 큰절을 한 것은 2번째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 지지 못했다”며 큰절을 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다시 한껏 몸을 낮추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된 반면, 정권심판론은 50%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의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연휴 전까지 최대 승부처인 서울·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 반동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민심 이반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이 후보는 전날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공약도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완화 등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더 높은데다 당내 진문 세력의 반발을 불러와 내부 분열만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정’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삼가는 모양새다.

이 후보가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비리 세력이라는 식의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이철 연설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여러분, 반대도 낮췄어 있다. 이 부정한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것이 누구냐. 민주당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까지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31개 시군을 돌며 매일 맞춤형 공약을 공개한다. 이날도 용인(경강선 연장 검토·57호 국지도 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경기도 이천시 이천중앙로문화의거리에서 도착, 축석연설 도중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절구간 연결 검토), 이천(반도체 산업 지원·동탄-부발선 신설 검토), 여주(GTX-F 여주까지 연장·여주-원주간 북선전철에 강건역 신설 검토), 양평

(지하철 5호선과 경의중앙선 팔당역 연결 검토) 등 지역별 각종 공약을 쏟아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윤석열 42.9%·이재명 35.5%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0일 ~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치·사회 현안 전국 정치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 각각 42.9%, 35.5%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9.8%, 정의당 심상정 후보 3.8%, 조원진 후보 0.8%, 김동연 후보 0.8% 순이었다.

지역별로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46.4%), 대전·세종·충청(44.1%), 부산·울산·경남(47.8%), 대구·경북(53.1%)에서 많았고, 이 후보는 호남권(전북 55.0%·광주전남 53.5%)에서 많았다.

대선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윤 후보는 46.3%를 기록했고, 이 후보는 40.9%로 나타났다. 최근 제기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 47.9%, 반대 43.3% 오차범위 내 찬성이 우세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3.0%, 부정 54.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결기(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응답률 3.8%)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1.8%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날개 단 전남 수소산업…효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점

조현준 회장 직접 참석 강한 의지 2031년 그린수소 20만t 생산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도 참여

김영록 전남지사와 조현준 효성 회장의 24일 수소산업 관련 협약 체결은 전남으로서는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효성은 미래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각각 큰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1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정부와 전남도의 공공투자자 함께 이뤄지면서 정책적인 지원까지 뒷받침된다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수소산업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린수소, 부생수소(블루수소), 액화수소 플랜트, 수소충전소, 해상풍력단지, 전력 그리드 망 구축 등이다.

◇그린수소 2031년부터 연간 20만t 생산=효성은 중장기적으로 총 1조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에 나선다. 전남 해상 풍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물을 전기 분해해 청정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식

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10 MW급 수전해 설비 구축 사업에 나선다. 효성은 수전해 증설 등을 포함해 그린수소 생산량을 향후 최대 연간 97만t까지 늘릴 계획이다. 2031년부터 20만t을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200만대 승용차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효성은 서울 및 수도권, 울산, 창원, 부산 등 주요 산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에 그린수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등 일부 국가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수소의 저장 및 활용을 위해서 연산 1만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2곳을 건립하고, 액화수소 충전소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신안 등 전남 주요지역 9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액화수소의 해상 운송을 추진하는 등 그린수소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블루수소(부생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하는 방법으로 블루수소 생산 및 활용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플랜트는 서부권 신안·영광 일원의 섬, 광양만권의 묘도 등에 각각 설치된다. 효성의 그린수소 생산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2031년까

지 약 1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효성은 그린수소 생산설비에 들어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5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안 및 여수지역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풍력 발전 조립 공장 건립, 부두 및 항만 건설,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30년까지 약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내 전체 해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총 25GW에 달한다. 영광·신안지역부터 여수 지역까지 약 300km 해상에 조성될 풍력발전 단지는 설비 용량 기준 원자력 발전소 25기 규모다.

전남도는 목포대양산단, 영암대불산단, 신안압해산단 등에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소 전주기 산업 클러스터를 목포 신항만에 52만㎡ 규모로 배후 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효성은 이에 따라 우선 2023년까지 전남 지역에

해상 풍력 발전 조립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해상 풍력 발전에 따른 전력망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효성은 시장 규모가 19조원에 달하는 전력망 구축 사업에 초고압압입기 및 차단기 등 송배전 전력기기와 신재생에너지의 송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HVDC(초고압 직류 송전) 공급이 예상된다. 해상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및 저장하기 위한 STATCOM(무효전력보상장치)와 ESS(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등도 대거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1위의 수소 사업 경쟁력을 키워 온 효성은 지난 해 6월 글로벌 화학 기업인 린데와 손잡고 효성화학의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목표도 밝히는 등 액화수소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성은 한국 에너지공대와 함께 20MW 해상풍력 터빈 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했으며, 25GW급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그리드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www.kwangshin.ac.kr

학부 정시모집		학부 편입모집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31	0
	한국어교육과	2	0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19	0
	유아교육과	6	0
예능	음악학부	12	0
	음악학 전공		
총 계		70	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를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진행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형일: 2022. 1. 25(화)

▶ 진행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책자소로 36